



63일 만에 치러진 고 김승모 노동시민사회장 “끝이 아닌 시작이다”

금속노조 "위험의 외주화 끝장내는 투쟁 이어갈 것"

HL만도 평택공장에서 일하다 중대재해로 세상을 떠난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승모 조합원의 노동시민사회장이 사망 63일 만인 22일 저녁 서울고용노동청 앞 농성장에서 열렸다.

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 동지들은 한목소리로 고인을 추모하며, 위험의 외주화와 불법파견을 근절하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가열찬 투쟁을 다짐했다.

같은 날 오후 5시경, 정몽원 HL만도그룹 회장이 서울노동청 농성장을 직접 찾아 고인과 유가족 앞에 고개를 숙이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는 아들의 억울한 죽음 앞에 피눈물을 삼키며 싸워온 유가족과 금속노조 만도지부,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이 62일 동안 굶힘 없이 전개해 온 완강한 투쟁으로 이끌어낸 성과다.

앞서 노조와 사측은 새벽 4시경 극적으로 합의를 도출했다. 합의안에는 ▲최고책임자 사과 ▲노조가 참여하는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불법파견 관련 수사 협조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은 “30년 전 자본이 비정규직 제도를 도입했을 때 더 강력히 막아내지 못했던 뼈아픈 반성을 한다”며 “대한민국 노동인권 지수는 OECD 꼴찌다. 재벌에겐 천국

이고 비정규직 노동자에겐 하루하루 목숨을 걸어야 하는 지옥인 현장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험의 외주화를 끝장내고 다시는 노동자가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결의했다.

이현우 금속노조 만도지부장은 “오늘의 합의가 승모의 숨결을 돌려놓을 수는 없지만, 진실에 다가가기 위한 첫 단추”라며 “합의가 끝났다고 싸움이 끝난 것은 아니다.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이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는지 만도지부가 끝까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김승모 노동자의 부친은 참가자들에게 큰절을 올리며 “두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자기 일처럼 함께 울고 싸워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오늘이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이다. 내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마음을 모아 달라”고 눈시울을 붉혔다.

금속노조는 “더는 일하다 죽는 노동자가 없길 바란다”며 “합의사항 이행을 철저히 감시하고 위험의 외주화 근절과 불법파견 철폐를 위한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는 23일 오전 만도 평택공장 노제를 끝으로 고 김승모 노동자의 발인을 마친다.